

<코오롱>

정밀·소재 투자 완료 화학사업 본격화

코오롱(대표 하기주)은 지난해 정밀화학 및 나일론 필름 공장 준공 등 화학부문 투자가 완료, 화학 사업에 박차를 가한 한해였다.

코오롱의 91년 총 매출규모는 7047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.7% 증가했으며, 순이익은 55억5000만 원 전년대비 17.0% 증가해 매출·수익 모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91년의 매출호조는 나일론·폴리에스터 원사 및 원단 수출증가에 기인하며, 수익이 90년의 125.0% 증가에 못미치는 17.0% 증가에 그친 것은 금융비용 부담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.

<표1> 코오롱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

(단위:억원, %)

항 목	1988	1989	1990	1991
매 출 액	4828.5	5141.7	6036.5	7047.4
증 가 율	18.4	6.4	17.4	16.7
매출총이익	588.1	543.2	798.2	985.7
영 업 이 익	293.6	205.8	402.5	531.7
경 상 이 익	90.4	33.1	59.8	70.7
당기순이익	95.6	21.0	47.4	55.5
증 가 율	△13.1	△77.9	125.0	17.0
유 동 자 산	2022.0	2668.0	2849.5	2715.9
고 정 자 산	3267.0	3693.7	3853.7	4618.6
자 산 총 계	5674.4	6820.0	7291.7	8221.5
유 동 부 채	1515.9	2256.3	2427.5	2846.5
고 정 부 채	2058.2	2479.5	2800.0	3171.9
부 채 총 계	3703.2	4843.8	5295.4	6018.5
자 본 금	282.6	289.0	289.2	361.5
자 본 총 계	1971.1	1976.2	1995.7	2203.0

<표2> 코오롱의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

(단위:톤, 1000YDS, 억원, %)

구 분	1990		1991			1992(예상)		
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증감률	수 량	금 액	증감률
PET#나일론등	—	354.0	—	448.0	26.6	—	—	—
M/C(비디오테이프)	—	568.0	—	585.0	3.0	—	1890.0	13.2
기 타	—	621.0	—	636.0	2.4	—	—	—
화 학 사 업	—	1543.0	—	1669.0	8.2	—	1890.0	13.2
N / F	}09,451	981.0	}16,128	1233.0	25.7	}30,000	}2870.0	}10.3
P / F		1185.0		1369.0	15.5			
원 사 계	109,451	2166.0	116,128	2602.0	20.1	130,000	2870.0	10.3
코 오 드	}27,250	820.0	}28,760	928.0	13.2	}30,000	}1490.0	}14.9
산 자		217.0		215.0	△0.9			
인 테 리 어	}27,250	119.0	}28,760	153.0	28.5	}30,000	}1490.0	}14.9
산 자 계		1156.0		1297.0	12.2			
원 단	121,839	1172.0	143,197	1479	26.2	160,000	1700.0	14.9
총 매 출	—	6036.5	—	7047.4	16.7	—	7950.0	12.8

주) 증감률은 금액기준, △는 감소

사업별로는 원사계가 2602억원의 매출을 올려 20.1%의 큰폭의 신장세를 보이는 등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여 섬유계 총 매출액은 537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6.3%를 차지하고 있다. 또 비섬유부문의 총 매출규모는 166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3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중 필름·플라스틱부문 매출액은 448억원 26.6%, M/C 585억원 3.0% 각각 증가했다.

특히, 코오롱은 지난해 정밀화학 및 신소재분야 신규 참여를 적극화해 3000톤 규모의 정밀화학 공장을 준공했으며, 2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제(Poly Acrylamide) 공장 및 1800톤 규모의 나일론 필름 공장, 3백만㎡ 규모의 DFR(Dry Film Photoresist) 공장을 완공했다.

또 코오롱은 기존의 엔플라사업분야의 매출확대에 주력, N6 1만톤, N66 3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, 1만2020톤(N6기준) 국내수요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양나일론을 추격하고 있으며, N66은 국내수요 7500톤중 1700톤을 공급했다.

또 PBT도 87년 500톤에서 꾸준히 신장, 지난해 960톤을 판매하는 등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따라서 올해 코오롱의 매출액은 7950억원으로 전년대비 12.8% 증가가 예상되며, 화학부문은 정밀화학제품 및 DFR 등의 판매 본격화로 1890억원, 전년대비 13.2%의 성장이 예상된다.